

## 원창인쇄기계 기자간담회 “오프셋과 함께 한 50년 앞으로는 디지털인쇄도 함께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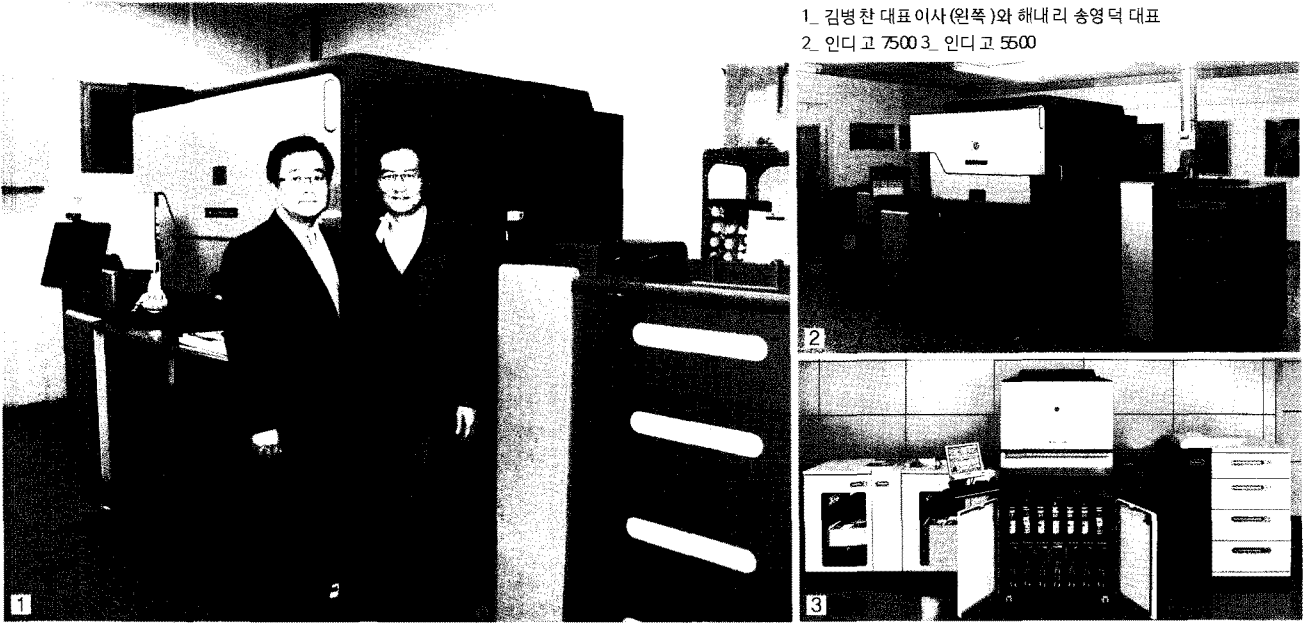
지난 11월 19일 원창인쇄기계(주) (대표이사 김병찬)는 서울 영등포동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디지털인쇄기 공급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찬 대표이사는 공식적인 총판계약은 지난 1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원창인쇄기계는 HP 디지털 인쇄기 인디고(Indigo)의 국내 판매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인디고 디지털인쇄기의 국내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아끼야마, 사쿠라이 등 오프셋인쇄기를 국내에 공급하는데 전념해온 원창인쇄기계의 이 같은 사업 영역 확장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김병찬 대표이사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원창은 50여 년간 오프셋인쇄기를 판매해온 회사로서 HP와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인쇄기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간단치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기본적인 검토를 한 것은 2~3년 전부터입니다만, 본격적인 검토를 한 것은 1년 정도 됩니다. 인쇄업계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인쇄기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오프셋인쇄기를 오

랫동안 공급해 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디지털인쇄기사업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원창인쇄기계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인쇄기의 성장이 반드시 오프셋인쇄기 시장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부분 상호 보완하는 면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객과 함께 하고, 고객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원창의 경영이념은 디지털인쇄기 사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1\_ 김병찬 대표이사(왼쪽)와 해내리 송영덕 대표  
2\_ 인디고 7500 3\_ 인디고 5500

앞으로 디지털인쇄기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몇 대를 팔겠다고 시장점유율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고객의 수익창출을 함께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디지털 인쇄기는 수백 대 수준이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오프셋인쇄기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프셋인쇄기 부문의 사업은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인가요.

당연히 오프셋인쇄기 사업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프셋인쇄기 사업과 디지털인쇄기 사업은 나란히 병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대형 고객사들의 경우에는 오프셋인쇄기와 디지털인쇄기를 함께 설치, 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1~2대만을 운용하는 고객사들의 입장에서는 병행하여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은 고객들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쇄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안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인쇄기의 옵션이 오프셋이나 디지털을 막론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최상의 제안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HP와 디지털인쇄기 공급계약을 맺은 이후, 처음으로 (주)해내리에 인디고 5500, 7500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내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판매 동기 및 판매장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해내리(대표 송영덕)는 오프셋인쇄기 6대를 비롯하여 중철기, 접지기, 재단기 등 다수의 후가공기계를 갖춘 대형업체입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인쇄기를 1대 갖고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패키징 인쇄와 소량다품종인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입한 장비는 인디고 5500과 7500이며 5500은 범용성이 높은 디지털인쇄기로 오프셋 수준의 외관과 충실한 사진품질 자랑하는 생산성 높은 디지털 솔루션입니다. 5500은 단 한명의 작업자만으로도 2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인쇄 매체 키트를 함께 사용하면 신속하게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접이 상자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7500은 현재 출시된 디지털인쇄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유연성과 고급 기술을 자랑하는 대용량 낱장 급지 디지털인쇄솔루션으로 인쇄기에 적용된 자동화 기능으로 품질과 생산성의 향상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뛰어난 다기능성을 갖춰 코팅지, 무코팅지 및 특수용지에서도 두꺼운 용지를 인쇄할 수 있으며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광범위한 워크플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인쇄사업에 대한 포부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인쇄환경에서도 고객사들의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인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해, 두해 반짝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50년 동안 오프셋인쇄기 공급으로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는 오프셋인쇄기와 디지털인쇄기의 양 날개로 함께 하는 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